

깡충 댜 추석물가에 올상 “마트가면 한숨만”

배추 한 포기 1만1954원·양배추 5748원
사과 10개 3만3218원...전년대비 60.5% ↑

인천에 사는 주부 임모(59)씨는 추석 앞두고 마트를 찾았다가 결국 빈손으로 발길을 돌렸다. 지난해보다 부쩍 오른 장바구니 물가에 선뜻 추석맞이 음식을 구매하기 망설여졌기 때문이다. 임씨는 “올해 코로나19로 생활도 빠듯한데 비까지 많이 오면서 채소, 과일 등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다”면서 “추석이 가까워지면 조금이나마 가격이 내려갈까 싶어 몇 차례 마트를 찾았지만, 큰 차이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악재와 함께 길었던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장바구니 물가마저 비상이 걸리면서 서

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격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24일 기준 과일 배추 한 포기의 평균 소매 가격은 1만1954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323원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8716원)과 비교해도 3000원이나 높은 수준이다. 양배추도 1포기에 5748원으로 1년 전(2765원)보다 2000원 올랐다. 시금치 1kg 가격은 지난해(1만3218원)보다 약 3700원 상승한 1만6969원이었으며 수박 1개는 2만3050원으로 전년(1만8151원)보다 4900원 올랐다. 오이(가시계통) 10개 가격은 1만1557원, 호박(애호박)은 1개에 2384원, 토마토 1kg 7913원, 당근(무세척)

1kg 5757원, 양파 1kg 2278원, 대파 1kg 4154원, 쪽파 1kg 9959원, 방울 토마토 1kg 9588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모두 가격이 상승했다. 과일도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사과(홍로)는 10개에 3만3218원으로 지난해(2만698원)보다 21%가량 더 올랐다. 배(신고) 10개는 3만6985원, 포도(거봉) 2kg에 1만8597원으로 지난해보다 가격이 소폭 올랐다.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도매 가격은 소매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급등했다. 대표적으로 양배추(8kg)는 1만4220원으로 1년 전(4720원)보다 3배 넘게 올랐다. 사과(홍로)는 10kg에 10만3000원으로 전년(2만7720원)보다 4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했으며 배 15kg도 전년(3만4280원)보다 약 2배 오른 7만1320원을 기록했다. 올해 농산물 급등은 기록적으로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일조시간이 평년보다 줄어 생육에 영향을 미치면서 작황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8월 강수량은 1007mm로 역대 3위, 강수일수는 45.8일로 역대 4번째로 많았다. 농산물 가격 불안과 함께 소고기, 돼지고기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 동향을 살펴본 결과 추석을 앞두고 24일 한우 등심 1kg 1등급 가격은 10만4347원이었다. 지난해 추석 일주일 전인 9월6일 가격(8만3694원)보다 2만653원(24.6%) 올랐다. 같은 기간 한우 도매 가격은 6만5367원에서 7만3125원으로 11.9% 상승했다. 돼지고기 가격은 1kg에 2만3911원으로 지난해 추석 때(2만6200원)보다 19.2% 올랐다. 돼지고기 도매 가격(1등급)은 1kg에 5145원으로 전년(4853원)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목포~제주항로 ‘퀵제누비아’호 취항

감각적 공간·사생활 보호 등 최고급 리조트...29일 취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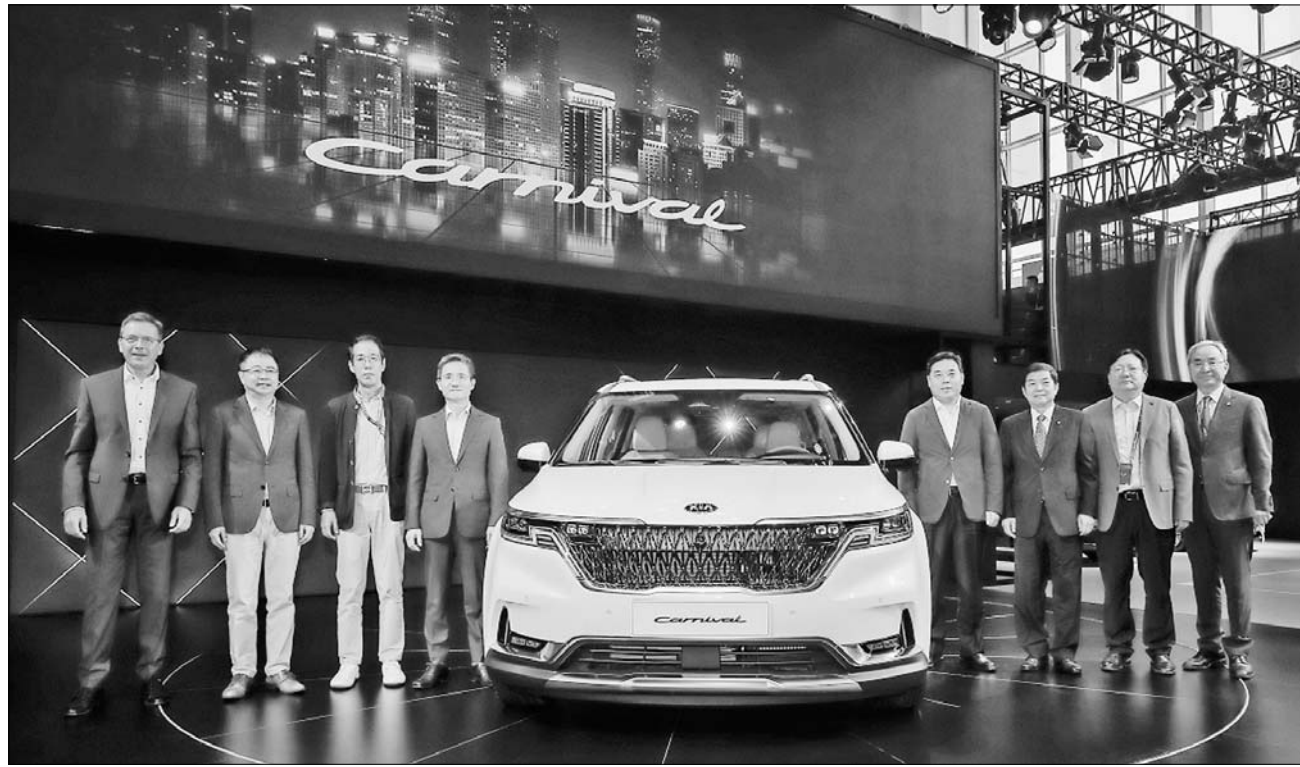


국내 최대·최고·호화 크루즈형 카페리선이 목포~제주 항로에 취항한다. 씨월드고속훼리(주)는 오는 29일 2만7391급 신조선박 ‘퀵제누비아’호가 목포~제주항로에 취항한다고 27일 밝혔다. 길이 170m, 너비 26m, 높이 20m 규모로 1284명의 여객과 480여 대의 차량(승용차 기준)을 싣고 최고 24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다. ‘퀵제누비아’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현대화펀드를 통해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된 국내 최대·최고·호화 크루즈형 카페리선이다. 씨월드고속훼리(주)에서 처음으로 신조선으로 건조한 ‘퀵제누비아’호는 최고급 리조트를 방불케한다. 감각적인 공간은 물론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고급스런 객실과 메인로비 현측에 대형 아크리움, 아고라 분수대, 오픈 테라스를 갖고 있다. 또 국내 유일 해상영화관, 팻 플레이룸,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한 선대 이동용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구비돼 있다. 운항 중 다양한 편의시설(고급바, 레스토랑, 편의점, 카페, 노래방, 오락실, 마사지라운지, 등)을 이용하면서 볼 수 있는 항로상에 펼쳐진 대형 파노라마식 오션뷰(Ocean View)는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씨월드고속훼리(주)는 ‘퀵제누비아’의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 ‘전 국민 승선체험 프로젝트’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퀵제누비아를 밋별 100팀의 체험단, 추억의 리마인드 제주 허니문 및 취향기법 특가(이코노미실 1+1, 고급객실 할인, 승용차량 20% 할인) 등이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1회 왕복운항한다. 목포항을 오전 1시 출항해 제주에 6시 도착하고, 제주에서는 오후 1시40분 출항해 목포항에 오후 6시 10분 도착한다. 다만, 토요일은 오전 1시 목포항을 출항해 제주에서 1박한 뒤 월요일 오후 1시40분 목포로 이동한다. /최수남 기자

전남 9월 전통주 ‘정고집 옛날 생동동주’



전남도는 9월을 대표한 남도 전통술로 나주 소재 남도락주의 ‘정고집 옛날 생동동주’를 선정했다. ‘정고집 옛날 생동동주’는 옛날 방식 그대로 나주평야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쌀을 저온 발효 숙성해 빛은 동동주다. 효모를 최대한 살려 쌀알이 오래 남아있고, 칼로리는 낮으면서 영양이 풍부하고 맛은 깔끔하다. 이 술을 빚은 남도락주는 2대에 걸쳐 60년 동안 막걸리 제조 노하우를 이어오고 있으며, 전통방식을 지키면서 현대적 위생시설을 갖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난 2011년 술 품질인증을 받은 전남지역 대표 양조장 중 한 곳이다. 동동주는 술을 발효시킨 후 맑은 술과 쌀알이 위로 뜬 것을 퍼 담은 것으로 ‘정고집 옛날 생동동주’를 잔에 따르면 쌀알이 동동 떠 있어 보는 재미가 있다. 또한 한국식품연구원 이만든 효모 중 2가지를 첨가해 바나나와 배, 사과 등 향도 느낄 수 있어 이채롭다. 특히 남도락주는 남도의 식문화와 잘 어울리는 술을 빚어 오고 있다. 생동동주는 술이 나오기까지 720시간(30일)이라는 오랜 발효시간을 거쳐 쓴맛, 단맛, 신맛과 함께 씹는 담백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막걸리다.



기아차 ‘2020 베이징 국제모터쇼’ 참가 기자단차는 2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국제전시센터(CIEC)에서 개막한 ‘2020 베이징 국제모터쇼(The 16th Beijing International Automotive Exhibition)’에서 중국 내 중장기 전략과 비전을 발표하고 중국 시장을 공략할 신차를 선보였다. /기아차 제공

‘빚투’에 ‘반대매매’도 역대급...비명지른 개미들

반대매매 300억 넘어...약 9년만에 최대치

“정신적으로 힘들네요. 이번주 반대매매 계속 터질 것 같아요. 그게 매물로 나오면 모두 약순환일텐데”, “아니 반대매매가 뭔지도 모르고 빚투한 주린이(주식 어린이)도 있나요. 모르면서 빚투하지 맙시다”

지난 23일 반대매매 규모가 약 9년 만에 최고치인 300억원을 넘어서자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성토와 안타까움을 담은 게시물이 쏟아졌다. 역대 초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유동성이 커지자 개인 투자자들이 그나마 수익률이 가장 높은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일부 종목들이 단기간에 두자릿수 성장세를 보이자 큰 시세차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빚낸 투자자들이 목격된다. 실제로 초보투자자인 ‘주린이(주식 어린이)’들이 두자릿수 급등에 혹

해 제약·바이오 등 종목에 무리하게 빚내 매입하다 피해를 겪는 모습도 목격된다. 신종코로나는 올해 이상 급등현상을 보이며 30배 가까이 올랐지만 최근 자사주 불록업(시간외 대량매매) 처분 소식에 다음날 두자릿수로 하락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한강에서 혼자 술마시고 있으면 누군가 와서 “너도 신종코로나를 샀던거냐”고 묻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을 정도다. 그럼에도 신종코로나 상승세가 계속 되면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의 ‘묻지마 투자’도 계속됐다. 심지어 제약과 관련된 제지 기업 신종코로나도 덩달아 올랐지만 이내 하락했다. 그동안 ‘빚투’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늘어났다. 이달들어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17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6월말 12조원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3개월 만에 5조원이 불어난 셈이다.

광주시, 코로나가 바꾼 출·퇴근길

비접촉 위해 ‘자가용 구매량 증가’...시내버스 이용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화되면서 올해 광주 시민들의 자가용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지역 중고차 전문사이트 사랑방 카(car.sarangbang.com)가 국토교통부·광주시자동차매매조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3~8월 광주지역 신차 등록대수는 2만5660대로 전년 동기(2만1283대) 대비 20.5% 늘어났다. 또 같은 기간 중고차 판매량은 3만1201대로 전년 동기(2만8985대) 대비 7.6% 증가했다. 차량 판매량 증가는 코로나19 확산이 늘면서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 예년보다 자가용 구입자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정부가 다양한 신차 구매 혜택을 내놓은 점도 자가용 구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부 정책에 따라 올해 상반기 정부 정책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신차와 중고차 판매량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노후 차량 교체 지원, 개별소비세 70% 인하 등 신차구매 혜택이 쏟아졌던 상반기에는 신차 등록대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혜택이 종료된 하반기부터 중고차 판매량이 신차 등록 대수를 앞지르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광주 신차 등록대수는 전년 대비 3월(12%), 4월(13%), 5월(26%), 6월(66%)까지 늘어난 반면 하반기로 들어선 7월부터는 차츰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반기 들어 신차 판매가 주춤하자 중고차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중고차 판매량은 7월 5472대로 전년 대비 8% 늘어난데 이어 8월에는 5348대로 두 자릿수인 14%까지 증가했다. 이 같은 광주 시민들의 자가용 선호는 시내버스 승승인원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광주시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시내버스 승승인원은 2723만865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자가 발생한 2월 승승인원은 지난해 대비 19%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3월(-47%), 4월(-43%), 5월(-37%), 6월(-22%), 7월(-40%), 8월(-36%)까지 감소세가 이어졌다.

‘코로나 공포’에 현금 쟁여놓나...10장 중 8장 쏹쏹 숨어

한수율 20.9%...1년 전 60.1% 보다 급감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5만원권을 중심으로 현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발행잔액이 급증한 반면 한수율은 ‘뚝’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위기로 경제가 불안해지자 현금을 쟁여두려는 심리가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코로나19가 주요국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화폐발행잔액이 5만원권을 중심으로 확대된 가운데 3~8월중 환수율이 20.9%로 전년(60.1%) 대비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 발행 화폐가 돌아오지 않았다

합(EU), 캐나다,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 주요국에서 코로나19 이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이 이들 주요 8개국을 대상으로 화폐발행 동향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이후 화폐발행증가율이 평상시 대비 2~3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경우 위기 이전인 지난해 3~8월 화폐발행잔액 증가율이 5% 수준이었으나, 올해 3~8월에는 평균 13%로 높아졌다. 급물살 금융위기 당시 수준(11%)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뉴시스

수준으로 강화해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기존 ICT기술사업부의 명칭을 클라우드기술사업부로 변경하고, 사업부 산하에는 핵심 기능별 총 세 개 조직으로 재편성했다. ▲카플라우드서비스개발실 ▲클라우드아키텍처실 ▲카플라우드플랫폼개발실이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앞으로도 클라우드 기술 관련 우수 인재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기아차, 클라우드 설계·개발 채용

신입·경력사원...28일부터 온라인 접수 시작

현대·기아차는 오는 28일 각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IT기획 ▲클라우드 플랫폼 설계/개발 ▲클라우드 IT서비스개발 등 총 3개 부문의 신입 및 경력 사원 채용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집 직무는 ▲클라우드 아키텍트 ▲S/W 개발자 ▲PM(Product Manager) 등으로 채용 규모는 수십 명 수준이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채용에 앞서 관련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클라우드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톱